

화인이민 (華人移民) 이 변종병독에 감염된후 일주일만에 기적처럼 회복되다



▲시민들에게 진상을 알리는 한국 파룬궁수련생들
◀파룬궁은 도덕승화와 병을 제거하고, 신체를 건강히 하는 신기한 효력이 있다. 그림은 파룬궁 제 5장 공법이다.

[명후이왕] 대륙이민 주루이강 (朱瑞剛) 선생 일가는 캐나다 토론토에 거주하고 있다. 금년 3월 15일, 주선생 일가는 당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영국 변종 병독에 감염된 것으로 검측됐다. 의료와 약물방조가 없는 상황에서 주선생 일가는 짧고짧은 일주일내에 완전히 완쾌되었다.

현재 전염성이 더욱 강한 변종병독 델타가 전세계에 유행되고, 중국에서도 창궐할때 주선생은 그의 경험이 사람들에게 방조가 있을 것을 희망했다. 주루이강은 41세로서 2017년 9월 전가족이 대륙으로부터 토론토에 왔다. 금년 3월 11일, 그는 발열하기 시작했다. “11일 나와 아들이 모두 발열 증상이 있어, 13일 병원을 예약했고, 15일 병원에서 양성판정을 받았습니다. 15일후 증상은 나날이 엄중해졌고, 그기간 병원측에서 우리에게 변종 병독에 감염됐다고 전화로 알렸습니다.” 주선생은 말했다. “3월 19일,

나의 호흡은 매우 곤란했고, 가슴위에 바위를 얹은 것같았습니다. 병원에서 검진 받을때 의사는 나의 혈양포화도 (血氧饱和度)가 90인데 더 낮아지면 중증실로 들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아직 주원할정도는 아니기에 병원측은 구급차로 나와 아들을 집까지 태워다 줬습니다.” 주루이강은 말했다. “나는 병원에서조차 병독에 대해 손수 무책이라는 것을 알고 깊은 공포감에 빠졌으며, 이번생은 끝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불시에 파룬따파가 생각났습니다. 나는 국내에 있을때 파룬궁을 알았고 또 배우기도 했었는데 후에 중공박해가 두려워 포기했습니다. 그날저녁 (3월 9일)부터 제 5장 공법을 연마하고 아들을 데리고 함께 ‘파룬따파하오 (法輪大法好 -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쩌싼런하오 (真善忍好 - 진선인은 좋습니다)’이 ‘구자 진언’을 읽었습니다. 신기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열이내리고 약 4.5

일이되자 신체는 완전히 회복되어 호흡은 정상이 되었습니다. 27일 병원에서는 저에게 직장복귀 증명을 해주면서 내가 완전히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기간 주선생의 아내 장여사도 발열증상이 있었는데 주선생은 아내를 데리고 파룬궁을 연마했다. 그도 일주일만에 모든 증상이 사라졌다. 이번 온집식구는 죽음에서 벗어났고, 주루이강은 파룬궁에 대해 “새로운 인식”이 있었다. 그는말했다. “그전에는 잘 몰랐는데 이번에 나는 파룬따파의 초상함을 진실하게 체험했으며 나의 질병도 완쾌되었습니다.”

파룬궁은 또 파룬따파 (法輪大法)라 하며, “진, 선, 인 (真, 善, 忍)”을 근본 지도로 하는 불가상승의 수련대법이고, 도덕승화와 병을 제거하고 신체를 건강히 하는 신기한 효력이 있다.

현재 이미 세계 100여개 나라와 지역에 널리 전해지고, 주요저서 <전법륜 (轉法輪)>은 이미 40여개 언어로 세계에서 공개 발행한다.

역병은 무엇을 두려워 하는가?

삽화: 회화 선옥



자고이래 한 지역에 예법이 크게 파괴되고 도덕이 타락하면 역병의 유행이 종종 잇따랐다. 이른바 ‘원한에는 상대가 있고, 빛에는 빛쟁이가 있기’에 역병은 단지 마땅히 보응 받을 ‘빛쟁이’를 찾으며 자신의 일하는 범위를 알고 있다.

자신이 ‘빛쟁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기에서 말하는 빛은 업(業)이라는 뜻이며 사람이 나쁜 일을 하면 업이 생긴다. 명나라 오우가(吳又可)는 또 자신이 저술한 ‘역병론’에서 “무릇 역병이라는 병은 비풍(非風), 비한(非寒), 비서(非暑), 비습(非濕)이며 이는 천지간의 또 다른 일종의 이상한 기에 감염된 것이다.”라며 이를 ‘여기(癘氣)’라 칭했다. 그가 말한 ‘여기’는 지금 말로 하면 병독 성분을 함유한 미시적인 물질이다. 수련계의 말로 하면 그것은 미세한 악한 영(靈) 따위의 생명이다. 목숨을 가져가려는 이런 저령(低靈)을 쫓으려면 초상적인 능력이 있어야 한다.

비결은 약에 있지 않다

영화 《대명겁(大明劫)》중에 이런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명나라 말기에 대역병이 유행해 명조 장군 손전정(孫傳庭)은 위난이 닥쳤을 때 임명을 받아 민의(郎中) 오유성(吳有性, 자는, 又可)을 기용했다. 오유성은 중약 ‘달원음(達原飲)’을 만들었고 환자가 복용하니 역병이 매우 빨리 사라졌다. 오

유성은 후에 ‘역병론’이라는 책을 저술했다.

‘달원음(達原飲)’이 정말 그렇게 효과가 있는가? 오우가는 역병을 치료한 묘책은 사실 약에 있지 않았다. ‘달원음’은 평범한 약일 뿐인데, 보조약을 더해 쓸모없는 것을 유용하게 했다. 만약 당신이 민간의 고인(高人), 속세를 벗어난 고인 혹은 일정한 경지의 수련인을 만나면 그들은 당신에게 오우가는 도가의 한 문을 수행했다고 알려줄 것이다. 그 보조약은 그 법문(法門)의 한 마디 구결 혹은 ‘진언(真言)’이라고 부른다. 바로 그 한 문의 호법신을 불러 보호하게 하고 약을 마시면 호법신은 그에게 수기(授記)한다. 이 수기는 부령(符令)으로서 역신(瘟神)은 수기를 보면 이 사람을 더는 곤란하게 하지 않는다. 이미 위험한 사람이라

면 그에게서 병독을 빼낸다. 그때면 아무리 약한 면역력이라도 이런 뿌리 없는 병독을 이겨내며 사람은 점차 회복된다.

어떤 사람은 오우가의 구결이 무엇인가? 공개해서 ‘달원음’까지 더하면 오늘날의 역병에 특효약이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물을 수도 있다. 그렇지 않다. 첫째로 이미 실전(失傳)되었다. 중국 고대에는 절기(絕技)의 계승은 모두 ‘구전심수, 불립문자(口傳心授, 不立文字)’를 중시하기에 오우가는 ‘역병론’에 비결을 쓸 수 없었다. 두 번째는 이미 세월이 많이 지나 상황이 변했다. 당시의 수련인과 신은 그들이 마땅히 관여할 일에 관여하고 더는 선을 넘지 않는다.

‘구자 진언’을 성심껏 넘하면 역병증상이 사라진다

무한 폐렴 폭발 전 한 호북성 적벽시 파룬궁수련생 갑과 그녀의 남편은 폐기종 진단을 받은 오빠를 모시고 무한 폐과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게했다. 그때 무한폐과병원은 이미 역병 전문 병원으로 정했으나 그들은 전혀 몰랐다.

후에 갑의 오빠와 기타 감염 환자의 병실을 구분시켰다. 갑의

▶3면에 계속

2020년 12월 5일, 대만 파룬궁수련생들은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 찌싼런하오(真善忍好)’ ‘구자 진언’을 배자했다.



◀ 2 면의 계속

의 남편은 이유를 몰랐기에 밤이면 심지어 역병구 병실문 앞의 침대에서 휴식하곤 했다. 당시 의사는 감히 그들에게 전염병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그저 빙빙 둘러서 말했다: “먼저 오빠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이런 병은 단번에 치료할수 있는게 아니예요. 폐기종은 치료하지도 못하면서 다른 병에 또 옮지 말고요...”

파룬궁수련생 갑과 남편은 적벽에 돌아온후 집에서 격리했다. 갑은 무한병원에서 호리하면서 장기간 연공을 하지 않았기에 따라서 구토, 기침, 전신이 차가운 증상이 나타났다. 그가 제 3 장 공법을 몇번 연마하자 모든 증상이 사라졌다. 이때 그의 남편도 호흡곤란 증상

이 나타나서 갑은 수련하지 않는 남편에게 ‘파룬따파하오 (法輪大法好), 쩌싼런하오 (眞善忍好)’ ‘구자 진언’ 을 성심껏 념하라고 알려 줬다. 얼마후 갑의 남편도 신기하게 회복됐다.

오늘날 까지도 그때 일을 말하기만 해도 갑의 남편은 “생각만 해도 정말 두렵다”고 한다.

2019년 호북성 적벽시의 한 노년 여성 파룬궁수련생 을이 진상을 알릴때 악인의 고발로 불법으로 1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무한 폐렴 폭발기간 여자 감옥의 많은 사람들이 확진받았다. 모든 사람들은 여관에 전의 돼 격리됐다. 파룬궁수련생 을과 두 바오자 (包夾, 감시인원) 는 한 방에 격리됐다.

얼마안돼 그중 한 바오자가 감염 확진을 받았다. 수련생 을

과 다른 한 바오자는 계속 며칠 더 격리됐고 며칠후 그 바오자도 감염 확진을 받았다. 하지만 파룬궁수련생은 여전히 무사했다. 옥측에서 또 감염되지 않은 바오자 2명을 파견해 을을 계속 박해했다. 얼마후 그 두 바오자도 감염 확진을 받았으나 여전히 수련생만은 무사했다.

이 일은 감옥내에서 큰 파동을 일으켰다. 그들은 모두 파룬궁수련생이 번마다 감염 되지 않는 것은 절대 일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고 다시는 파룬궁 박해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인식했다. 그러므로 감옥측에서 최후에 안배한 두 바오자는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박해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이리하여 그들 둘은 더는 병독에 감염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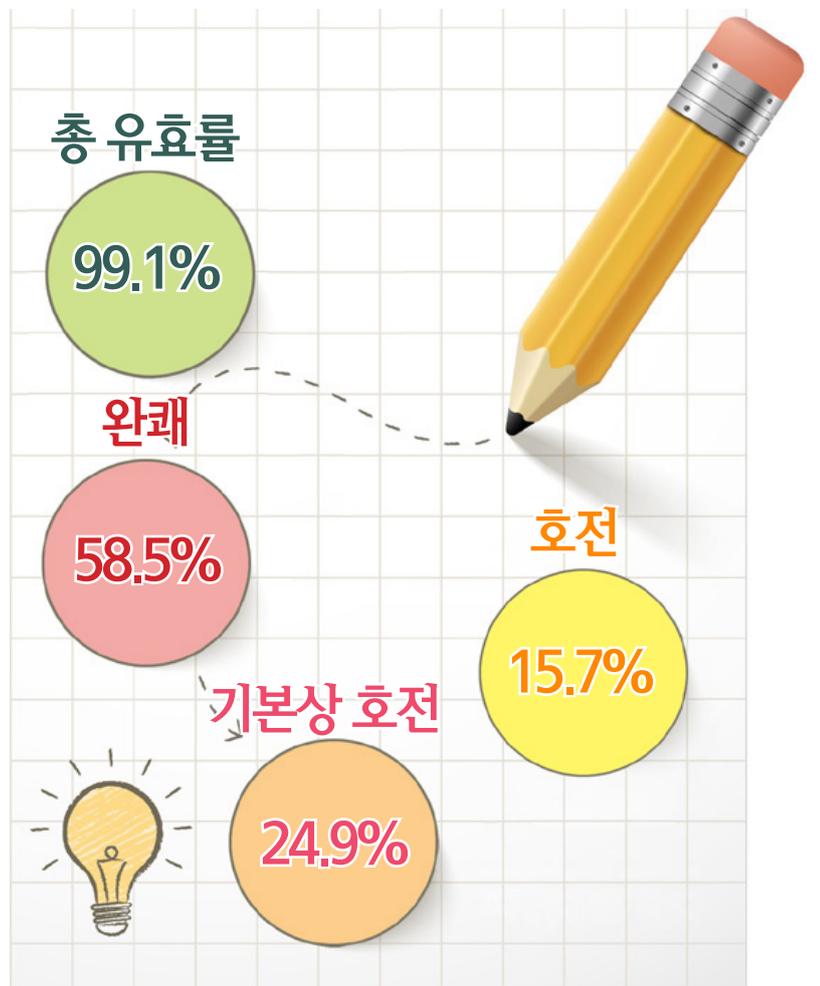
진상

파룬궁과 건강

북경 ‘만에 파룬궁 조사보고’

파룬궁이 전해진 후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히 하는 신기한 효과 때문에 짧디 짧은 몇년 사이에 수련인의 인수가 부단히 증가되어 중공이 파룬궁 박해를 실시하기전 대륙에는 이미 1 억이 되는 사람이 수련을 시작했다.

1998년 10월, 의학적 전문가들은 북경시 5개 구의 일부분 파룬궁수련생을 조사했다. 1만 2천 731명에 대한 조사결과에서 보다시피 58.5% 완쾌되었고, 24.9% 기본상 호전되었고, 15.7% 호전 되었다. 파룬궁이 병을 제거하는 효과에 도달한 총 유효률은 99.1% 었다. 파룬궁이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히 하는 효과는 현저하며, 사람들의 신심건강에 유익한 좋은 공법이다.



과학 연구

‘구자 진언’이 성공적으로 역병을 항제한 의학 연구

2020년 9월 17일, 한부의 < 신종코로나병독 백신연발의 곤경과 출로에 대한 사고 >란 문장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전 스위스 노바르티스사 고급 전염병 의학 박사 동위홍(董宇红)과 미국 전 육군 미생물학 연구원 Walter Reed 육군연구소 병독계 실험실주임 린샤오쉬(林晓旭)박사 두사람이 협력한 이 논문은 병독학, 면역학의 시점에서 현대 과학이 인체, 생명, 물질 인식에서의 국한성과 백신개발의 안전에 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 논문은 백신외의 새로운 출로를 탐구했다: “최근 우리가 하나의 ‘구자 진언’의 회고성 연구를 진행하여 세계 6개국, 6개 인종 36명 무한 폐렴 병독 감염자를 분석한데 따르면 감염자들은 병원에 입원할 수 없었거나, 혹은 병원에서 포기했거나, 혹은 약물치료가 무효가 되어 효과가 없는 상황에서 성심껏 ‘구자 진언’_‘파룬따파 하오, 찌싼

런 하오(法輪大法好, 眞善忍好)’를 념한뒤 현저하고 빠른 임상개선 효과를 보았다. 특히 중병(입원) 환자 11명의 개선 정도는 인심을 상당히 고무 시켰다. 종합분석에서 모두 신기한 효과는 병원 혹은 약물치료에서 온 것이 아니라 ‘구자 진언’에서 왔다는 것을 밝혔다.”

안례 17: 온 가족 30여명 중 사촌형이 감염됐다. 그는 아들과 손녀의 밀접한 접촉자이며 또 가족 20여명이 사촌형과 함께 식사하고, 말을 나누었기에 모두 밀접한 접촉자였다. 한집식구들이 모두 ‘구자 진언’을 념해 모두 무한 폐렴에 감염되지 않았다.

안례 23: 한집의 형제 2명이 감염됐다. 온집 식구 20여명은 매일 함께 식사하며 밀접히 접촉했기에 아주 공포를 느꼈다. 후에 친구의 소개로 ‘구자 진언’을 념했는데 모두 감염되지 않았다.

안례 25: 이집의 보모가 감염됐다. 보모와 주인집 온 가족이 친

구의 소개로 ‘구자 진언’을 념하자 모두 무사했다.

일찍 2005년 미국 베럴의학원 과학자들은 의학영역권위대체잡지에 논문을 발표했다. 한 무리 파룬궁수련자의 혈액 백세포로 실험을 진행하여 증실한 결과, 일반적인 건강인과 비교할 때 파룬궁수련자의 기중성 백세포는 세균을 제거하는 기능이 뚜렷이 증가됐고, 병독 방어 관련 조절유전자(예를 들어 인터페론-γ)가 선명하게 증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외래병독과 세포에 대해서도 더욱 강한 면역력이 있다.

동위홍과 린샤오쉬 두 의학전문가는 “사람들이 성심껏 ‘구자 진언’_‘파룬따파 하오, 찌싼런 하오(法輪大法好, 眞善忍好)’를 념 할때면 우주의 에너지장(能量場)에서 공진(共振)이 발생하여 면역력을 증가하고 자신을 보호해 병독의 감염을 받지 않게 한다.”고 했다. **밍후이왕**

연변 박해 소식

연길시 단진(丹進)사회구역 인원은 사오메이어(邵美娥)의 집을 소란하다

[밍후이왕] 2021년 7월 20일 오전 6시반좌우 연길시 단진사회구역 한 남성직원은 파룬궁수련생 사오메이어의 집을 찾아 불명의 서명을 요구하며 소란했다. 그는 문을 열어주지 않고, 선의적으로 진상을 알렸다. 그러나 남성은 듣지않을 뿐만 아니라 경찰에게 신고하겠다고며 전화를 걸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사오메이어는 아파트 2층에서 뛰어내려 탈출했다.

그후 시공안국 경찰은 열쇠회사 직원을 불러 문을 열고 집을 뒤집어 사부님의 법신상을 강탈해 갔다. 경찰이 문을 열때 사오메이어의 며느리가 보고 “무엇을 하느냐?”고 질문했다. 경찰은 “너와 무슨관계 인가?”고 악하게 말했다. 며느리는 “왜 관계 없는가? 이집은 우리 시어머니 집이다.”라고 했지만 경찰은 계속해서 문을 뜯고 들어 갔으며 위협하는 말까지 했다. 경찰은 집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발견하자 사회구역인원을 향해 “어떻게 칠순이 넘는 사람을 도망치게 해?”라며 크게 화를 냈고, 과정에 매우 기고만장 했다.

사오메이어는 작년 2월 20일 한 동수와 함께 진상을 알리는 과정에 악인에게 고발당했다. 당시 진학파출소와 시국에 의해 납치되고 당일 집으로 풀려났다. 11월 1일, 경찰이 또 집에와 소

란할때 그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그후 경찰은 여러번 찾아왔고 전화소란도 했다. 7월 19일, 또다시 그의 딸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했다. 듣는 소식에 따르면 7월 19일과 20일, 여러명 파룬궁수련생이 소란받고 납치됐다고 한다. 현재 많은 파룬궁수련생들이 연길 구치소에 감금 되었는데 구치소에서 세뇌반을 꾸린다고 한다.

계속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하는 경찰에게 엄숙하게 통고한다. 석자 위에 신령이 있는데, 사람이 하는 일을 하늘이 보고있다. 선악에는 보응이 있거늘 자신에게 출로를 남길 것을 바란다!